

익산시 복지박람회 내달 8일 개최

현장 복지체험 기회 제공·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 민간 사회보장 기관·단체·사회적기업 등 함께 참여

「제1회 익산시 복지박람회」가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복지, 사람과 사랑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9월 8일 열린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제1회 익산시 복지박람회는 시민에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함께 참여하는 현장 복지체험 기회를 제공해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의 공공과 민간 사회보장 기관·단체·사회적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난타와 풍물공연 및 유아예제를 식전행사로 시작하는 기념식 행사에서는 지역복지 유공자 30여명에 대해 표창하며, 박람회장은 임신·출산·보육부터 노인 및 통합서비스 분야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테마로 다채로운 체험 참가활동과 익산 복지시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다.

43개 체험홍보부스, 14팀의 문화공연과 전시장 지역봉사단체들의 무료급식소, (주)하림 푸드트러 운영, 부대행사 등 박람회장을 찾은 모든 분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익산시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2년여 간의 활동과 성과를 뽐내는 읍면동 연합 체험홍보부스와 전시공간도 함께 마련하여 찾아오는 시민에게 내가 사는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아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복지박람회 박람회 부대행사로 퀴즈로 재미를 더하면서 쉽게 복지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OX퀴즈와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메시지를 담은 자살예방 플래시몹을 함께하며 대안원

에 막을 내린다. 현재 익산시의 익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합동 박람회로 만들기 위하여 4개월 동안 15회의 회의를 거쳐 세부 계획 논의 및 진행사항 등을 점검하며 복지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등이 풍성한 복지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복지박람회에 찾아오셔서 참여하고 복지정보를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함께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부터 민·관 사회보장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법적 협력체로 현재 7기를 맞이했으며 대표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160여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2개 읍면동에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위원 425명이 각 읍면동의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군산사랑상품권 본격 유통

발행일에 맞춰 내달 3일 공설시장 북문 입구에서 경품행사

나라로 떨어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이 9월 3일부터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간다.

시에서는 상품권의 최초 발매일에 맞춰 구매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구매의욕을 높이고자 9월 3일 공설시장 북문 입구에서 경품행사를 연다.

기념행사에는 김임준 군산시장과 비롯한 판매대행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장, 상인회 회장 및 각 협회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발행기념 행사는 3일 오전 10시 풍

물과 길놀이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희망풍선 세례머니 등으로 진행되며, 군산사랑상품권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구매자를 섭외하여 30만원 상당의 기념품 전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김임준 군산시장 등 참석 내외빈이 군산사랑상품권 구입하고 직접 공설시장 방문해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시연행사도 갖는다.

군산사랑상품권은 9월 3일부터 발행기념 10% 할인된 금액으로 소진 시까지

한정 판매하고 관내 농협 및 전북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할인금액은 국비로 보전되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품권은 음식점, 슈퍼, 학원, 주유소, 마용실, 병원 약국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맹점 지정 업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의 10% 할인 판매로 인해 시민들은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관외로 이탈하던 손님들의 관내 유입효과로 인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지역 도의원과 현안 해결 상호협력체계 구축

군산시는 지역현안 해결과 도의회의 협력 강화를 위해 30일 '도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식 나기학 문승우 조동용 의원 등 4명의 도의원과 이송복 군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속 부서 국과장들이 참석

한 가운데 도 협조가 필요한 사업 및 2019년 국가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군산시는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

쇄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전북도-시-정차관이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어린이의 통학안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패이퍼코리아 부지 내 초·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파이 구획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군산=김정훈기자



평생학습관의 운영비 지원, 관광객 증가에 따른 버스 및 관광지 무료와 이파이 구획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아버지·자녀가 함께 하는 1박2일 참가자 모집

군산시, 아버지·초등 자녀 두 명 구성 가정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친밀감·가족건강성 증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운영하는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구수연)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특별한 캠프 '별이 빛나는 밤에'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9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오는 9월 15일과 16일 무주 빨강치마 글램핑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평소 함께할 시간이 적은 아버지와 자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랜드 산책하며 대화 나누기 ▲가족진밀감 향상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등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 아버지와 자녀가 도심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가정 내 아버지의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수연 센터장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요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멋진 추억을 만들고 관계 향상과 더불어 가족의 건강성 또한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는 아버지와 초등학생 자녀 두 명으로 구성된 가정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9월 10일까지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gunsanfc.familynet.or.kr)를 통해 신청(선착순, 센터 프로그램 및 참여 가정 우선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443-53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인구정책 방향모색위한 시민토론회

익산시가 30일 모현도서관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에 대비한 익산형 인구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익산시의 기초발전으로 인구현황 및 인구변화 특성, 익산시의 인구정책 추진사항, 그간 추진경과 보고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익산시 인구는 저출산으로 매년 출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청장년층의 학업 및 일자리 이동으로 인해 대도시 진출이 이어지면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젊은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 출산보육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분야

별로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주제발표에 나선 익산시 인구정책 수립 용역기관인 전북행정평가연구소는 익산시 인구구조 특성 및 사례분석을 통해 인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과제를 소개했다.

시민들의 의식조사 및 인구구조 변화 분석 등을 통해 익산시 인구감소의 원인은 일자리 부족 및 높은 집값 등 정주여건을 원인으로 분석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모색해 인구감소에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향후 고려해야 할 과제로 정부정책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통해 주소전입 지원시책 등 단기적 시책과 더불어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왕궁 동용마을 입도 1.5km 신설

익산시가 왕궁면 동용리 동용마을 시대산 자락에 3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5km의 입도를 신설한다.

입도 개설은 익산시토립조합에서 맡아 시공하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개설한 1km의 입도를 연장해나가는 사업으로 입도가 완료되면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 사업을 하는 작업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동용마을은 지난 2016년 원주 지역과의 경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산 속의 산불은 산불진화대의 진입이 어려워 산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에 비해 진화 시간이 늦춰지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도는 유사시 산불 진화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

익산시가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설계용역은 경관디자인 협의, 에너지 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 각종 협의 절차를 거쳐 기술 자문 경제성 검토 등 마지막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말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비 96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다목적체육관은 모현동 노인종합복지관 인근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

적 4,719㎡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성인 풀과 어린이 풀을 포함한 수영장과 헬스장 요가 노인운동시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며, 올해 11월 착공해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현을 시장은 "정치권 중앙부처와 잘 협의하여 나머지 국비 13억 9천 500만 원도 확보가 됐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기간 내 완공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는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6개 강좌 수강생 1,1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규과정에서는 성인, 어린이,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를 개설했으며, 기존 56개 강좌에 신규 9개 강좌를 추가하여 9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12주간 운영된다. /군산=김정훈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